



# 미래 디지털 기술 한자리에

## 제6회 DPG쇼2009 성료

디지털 프린팅 업계 동향과 소비자들의 구매 방향을 가늠한 DPG쇼2009가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개최됐다. 43개 업체, 119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전시회기간동안 1만 5천여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불경기의 터널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하는 프린팅 업계의 다양한 시도, 향후 소비 경향을 읽을 수 있는 부대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국내 유일의 디지털 프린팅 전문 전시회인 DPG쇼2009는 'Print Your Successful Business!' 를 캐치프레이즈로 열렸으며 그동안의 디지털 프린팅 및 실사출력 장비 위주 전시에서 방향을 바꾸어 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등 보다 다변화를 추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 참가업체들은 과거 옥외광고물 중심의 소비 시장에서 전환 인테리어 소품, 벽지, 디지털 포토 등 디지털 프린팅 장비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찾고 개발하는 등 영역을 확장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COEX 전시1팀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의 참관객 수는 1만 5411명으로 최종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1개 업체당 상담건수는 평균 64회에 달했으며 차기 전시회에 대한 참가여부는 참가예정 27%, 긍정적 검토 37%로 긍정적 답변이 64%에 달했다. 미정은 30%, 불참 예정은 6%로 나타났다. 차기 전시회 참가 규모에 대한 설문에서는 확대 23%, 동일 44%, 축소 3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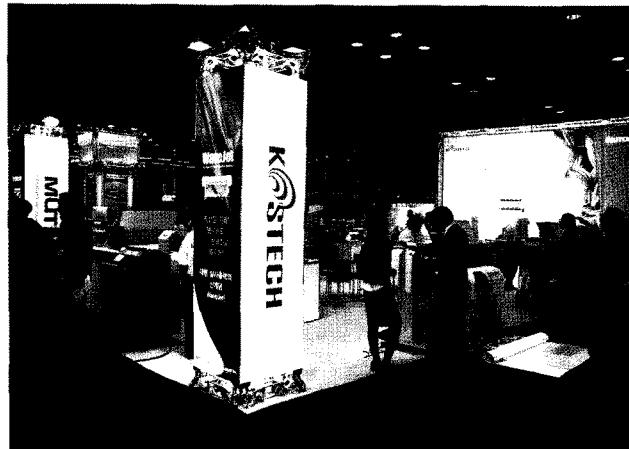
## 주요 전시업체 ►►►

드림인포시스, 12색 지원 대형프린터 DTX44, DTX60 선봬



드림인포시스(대표 김동현)는 12색을 지원하는 대형프린터 DTX44와 DTX60를 비롯하여 레이저시스템 WORLD CUT 시리즈 등의 다양한 제품군을 출품했다. DTX시리즈는 대용량 화상 데이터와 고속 데이터 처리 및 고밀도의 더블헤드를 정밀하게 실행하는 프린터 제어가 단 1개의 칩으로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새로 개발한 1인치 와이드 더블헤드를 탑재, 1색에 기존의 2배인 2560개의 노즐과 6색 1인치 와이드 헤드 2개로 총 3만720개의 노즐로 고밀도 고화질 출력과 고속화를 실현했다.

**코스테크, 고객 니즈에 최적화한 장비 출품**



일본 무토의 국내 공급원인 코스테크(대표 민경원)가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한 다양한 장비 라인업을 출품, 성수기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코스테크는 수입공급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기술력을 갖춰 단순한 판매 뿐 아니라 국내시장 상황에 적합하게 정비 및 개장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테크는 수성장비 '웨이브젯', 솔벤트장비 '밸류젯'을 중심으로 더블헤드의 장착으로 출력속도 및 품질을 향상시킨 '웨이브젯 프로', 1604TX 전사출력장비와 결합해 최고 수준의 DTP 출력을 실현하는 디지털날염기 '뉴 오펠리스' 등을 전시해 시장 선도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는 평을 들었다.

한국유니콤, 접지기·밴딩기·라벨기 등 다양한 제품군 출품



한국유니콤(대표 문전수)은 인쇄후가공기계와 포장기계 부문에서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선보인 여러 제품 가운데 DigiFold 5000P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된 오시기능과 접지기능을 통합한 솔루션을 장착했다. 접지와 오시기능 모두를 한 번에, 또는 별도로도 작업할 수 있어 작업의 유연성을 더했다. 또한 Morgana 고유의 특허인 Flying Knife 기술을 이용하여 고속작업 아래의 작업에서도 다양한 접지작업을 할 수 있다.

**싸인디지텍, 다양한 실사 장비 및 레이저 프린터 공급**



싸인디지텍(대표 강현주)은 다양한 실사 장비와 경쟁력 있는 레이저 프린터를 선보였다. 회사측에서 간판으로 내세운 장비는 DURAJET-1904T이다. 동급 최대 출력속도인 시간당 최대 39m<sup>2</sup>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며, 수명이 긴 피에조 프린트헤드를 사용해 옥외광고물의 제작에 높은 효율성을 발휘한다. 4색 (C,M,Y,K)의 잉크를 사용, 생생한 색상을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이외에도 오일잉크를 사용해 자외선 및 수분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정적인 자동 용지공급 장치 및 자동 잉크공급 장치와 헤드분사 전압 조절 기능으로 잉크 분사량 조절해 경제성을 높인 것도 눈길을 끌었다. ◎